

# 끝없는 쌀값 하락에...전남쌀 수출길 뚫기 '사활'

### 전남도, 해외 상설판매장 통해 수출 1000t 목표 달성 견결음 곡성 석곡농협 베트남·호주 등 3개국에 50t 규모 수출 선적식 수출용 포장재·팔레트 등 기자재 비용·수출물량 정액 지원도

전남도가 국내 쌀값 하락에 따른 위기 극복 긴급 대책으로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통해 전남쌀 수출을 본격 개시하는 등 쌀 수출 1000t 목표 달성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올해 최소 40만 이상 초과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쌀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으며, 전남도는 쌀값이 20만원 이하로 떨어

어질 경우 수입쌀의 시장 방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곡성 석곡농협이 대표 브랜드쌀인 '백세미'와 '잠자리가 노닐던 쌀'을 베트남과 오스트리아, 호주 등 3개국에 총 50t 규모의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적은 해외 상설판매장의 국내 운영사인 농식품 수출 전문업체 ㈜골든힐과 석곡농협이 10월 말까지 80t의 쌀 수출계약을 한데 따른 것이다. 선적된 쌀은 스키잡의 초밥용, 한국 기업의 급식용, 한식당의 식자

재로 납품되며, 소매로도 판매된다. 특히 '잠자리가 노닐던 쌀' 품종인 새창무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전남의 토지와 재배 여건에 맞춰 7년에 걸쳐 개발한 고품질 쌀이다. 이 품종은 쌀알이 투명하고 단단해 밥을 지으면 찰기와 윤기가 흐르며, 식감이 쫄득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어, 전남쌀 수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국내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와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쌀 수출 마케팅 및 판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쌀 수출 생산자에게는 수출용 포장재 및 팔레트 등 기자재 비용을 지원하며, 수출 물량에 대해 1kg당 1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또 해외 상설판매장에서 전남 쌀을 수입하면 쌀 1개 컨테이너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의 판촉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쌀 수출에 총력을 펴고 있다. 한편 최근 쌀값은 10개월째 지속해서 하락, 17만6628원(80kg)까지 추락했으며, 이는 지난해 고점(21만222원)과 비교해 16%나 떨어진 가격이다. 전남도는 전남 쌀 수출에 매진하면서도 쌀 공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비 재배면적 감축,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 현실적인 쌀 값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수출은 전남쌀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기회이자, 한국쌀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전남 쌀이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등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소형 SUV도 전기차 시대 국내 판매 3대 중 1대는 EV 캐스퍼 지난달 1439대 팔려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최근 보급형 전기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 전면에 등장하면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지형이 전기차(EV) 중심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보급형 전기차 기아 EV3와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바람몰이 덕에 지난달 시판된 소형 SUV 3대 중 1대는 전기차였다. 18일 국내 완성차 업체 5곳(현대차·기아·KGM·발리타·한국GM·르노코리아) 판매 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시장에서 팔린 소형 SUV는 모두 1만6296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35.6%에 해당하는 5808대였다. 이전까지 10% 안팎에 불과했던 전기차 비중이 급격히 커져 3분의 1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같은 달 전기차 비중(9.0%)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EV3와 캐스퍼 일렉트릭을 주축으로 한 소형 SUV 전기차 판매가 지난달부터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EV3는 시판 첫 달인 지난 7월 1975대의 판매 실적을 올린 뒤 8월에는 4002대 팔렸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지난달 1439대 판매량으로 출발을 알렸다. 이들 두 차종은 지난 8월 한 달간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1~2위 자리를 꿰차기도 했다. 차량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보급형 차종에 출시와 함께 전기차뿐만 아니라 소형 SUV 시장에도 돌풍을 일으킨 셈이다. 최근 5년간 롤러코스터를 탄 국내 소형 SUV 시장도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소형 SUV 시장은 지난 2019년 현대차 메뉴, 기아 스톤이 등 신차 가세에 힘입어 연간 판매량 18만4274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현대차 신형 코나와 KGM모빌리티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출시되며 연간 판매량 14만9269대로 반등했다. 올해 1~8월 누적 판매량은 작년 신차 효과가 자연스럽게 사라져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9만7936대였다. 그러나 EV3와 캐스퍼 일렉트릭 판매가 본격화한 지난 8월 한 달간 전체 소형 SUV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37.0% 증가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보급형 EV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며 "그동안 대형차와 SUV만 찾던 내수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미성년자 주식보유 1위 한미반도체 부회장 아들 17세, 지분가치 2000억원

국내 상장사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 주주가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많게는 2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2년생인 2살짜리 아이가 20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국내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19명, 이 중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11명으로 조사됐다. 보유 주식 가치가 가장 큰 미성년자는 광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의 17세 아들로, 2006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622억원에서 1384억원이 늘었는데, 이는 연초 100만7984주였던 보유 주식 수가 올해 7월 197만7921주로 2배로 증가한 데다 인공지능(AI)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급증에 연초 이후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폭등한 영향이다. 지난해 말 주가가 6만1500원이었던 한미반도체 주가는 지난 12일 10만1400원으로 66%가량 올랐다.

솔브레인 정지완 회장의 11살 손녀는 솔브레인을 포함한 3개 상장종목 주식을 321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정양은 지난 연말까지 487억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주식을 일부 처분하면서 보유 가치가 약 34% 줄었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의 18세 자녀는 파랩신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이 회사 주식을 191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한미그룹 창업주인 고 임성기 회장의 16~18세 손주 3명은 140억~168억원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가지고 있다. 임 전 회장은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연합뉴스

## 제네시스-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파트너십 첫 전시 개막



현대차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지난 12일 첫 번째 전시인 '더 제네시스 파사드 커미션: 이블, Long Tail Halo' 전시를 열었다. 파사드 커미션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현대미술 전시전이다. 이번 파사드 커미션 첫 번째 작가는 조각, 회화 설치 등 대표적인 현대미술 작가인 이블이 참여했으며, 인류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완전성'에 대해 되묻는 대형 신규 설치 작품 4점을 선보인다. 사진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전시 기둥 사이로 이블 작가의 작품 4점이 전시된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

## 광기술원, 해저케이블 고장 예방·감시 시스템 개발 착수

### 제주~내륙 케이블 실시간 감시 기능

한국광기술원이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와 함께 초고압 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의 외상 고장 예방 및 상태 감시 솔루션 개발에 착수한다. 내년 4월까지 내륙과 제주를 잇는 해저케이블의 광음향분포센서(DAS, Distributed Acoustic Sensing)장비를 이용해 초고압 직류송전(HVDC) 해저 케이블의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는 기능을 구현할 방침이다. HVDC 해저 케이블은

제주와 내륙 간 높은 전압의 직류 전력을 장거리로 송전하기 위해 설치된 매우 중요한 인프라로, 바다 및 해저 환경의 특성상 어업활동으로 인한 손상 또는 고장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광기술원 연구팀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과 수행했던 '분포형 광센싱 기반 분석 알고리즘 개발' 산학연구에서 확보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단순히 진동만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해 대량으로 수

집되는 시계열 신호의 패턴을 정의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벤트를 분류함으로써 사고예방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 솔루션을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공동개발할 계획이다. 김영호 센터장은 "이번 과제는 해저케이블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광기술원은 전력 송전 모니터링 분야 인공지능 안전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단위조합 부실 심각...연체율 최고 37.61%

### 평균 연체율 은행권비 14배 높아

농협을 비롯한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단위조합의 연체율이 최고 37.61%로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수협 단위조합의 평균 연체율은 6.08%, 산림 단위조합 5.63%, 농협 단위조합 3.8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시점 국내 은행 평균 연체율(0.42%)과 견줘 14배가 넘는 수준이다. 연체율이 10%가 넘는 단위조합도 많았는데, 농협의 경우 전체 조합의 6.48%인 72개, 수협 9개(10%), 산림조합 19개(13.48%) 등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한 곳은 농협 단위조

합이었는데, 무려 37.61%를 기록했다. 수협 내에서는 26.56%, 산림조합은 26.97%가 가장 높은 연체율이었다. 연체율 상승과 함께 적자를 기록한 조합들도 수두룩했다. 지난해말 기준 산림조합 내 140개 단위조합 중 64곳(45.71%)가 적자를 봤고, 수협의 경우 24.44%(22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농협은 적자 단위조합이 19곳(1.71%)로 비교적 적었다. 윤준병 의원은 "각 상호금융기관은 빨리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더 큰 위기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며 "이미 부실 수준이 심각해진 조합뿐만 아니라 잠재적 우려를 갖고 있는 조합까지 전수 조사해 정부 차원에서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콜롬비아 보고타의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 현지인들이 삼성전자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중남미 공략 강화

### 주요 15개국으로 판매망 확대

인공지능(AI) 가전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AI 콤보'를 전면에 내세워 페루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중남미 시장에서 유일하게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비스포크 AI 콤보를 선보였다. 비스포크 AI 콤보 중남미 출시를 기념, 현지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신제품 체험 행사를 여는 등 시장 공략에 힘쓰고 있는 삼성전자는 페루·아르헨티나·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 15개국으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과 건조 기능이 결합된 일체형 제품으로 세탁물을 옮기지 않고도 옷을 빨고 말리는 모든 과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를 탑재해 건조기를 따로 사용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준다. 특히 한 제품이 두 기능이 결합돼 뛰어난 공간 활용성도 장점이다. 또 AI 기반의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삼성전자 국내 드림세탁기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산업단지 60주년 기념식...광주지역 기업인 13명 정부 포상

산업단지 경영인들의 축제 '대한민국 산업단지 60주년 기념식'이 지난 12일 열렸다. 서울 구로 지하위컨벤션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광주지역 13명을 포함 전국 132명의 기업인이 정부 포상 등을 수상했다. 지역 업체인 코비코(주)의 조광철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박준성(주)기리는 대표와 김일환(주)에이치글로벌 대표, 박석순(주)용아산업 대표, 박용서(주)우성정공 대표, 노항석(주)이화하이테크 대표, 서호연(주)우코리아(주) 부사장, 김정은(주)스 대표, 김은수(주)한성판넬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상에 전유리(주)라피네이티 팀장, 김진우(주)진우알테크 수석연구원, 김윤근(주)윈스바이오 이사, 임아름(주)원진기업 대표가 뽑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 유튜버 상위 10% 평균소득 3억4500만원 숫자는 전년보다 18% 늘어

유튜버와 인터넷방송 운영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3억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10%의 총 수입금액은 6650억4800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수입은 3억4494만원이었다. 상위 10%의 수입은 전년(3억609만원)과 견줘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수입은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의 45.7%를 차지했다. 2022년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전년보다 18.4% 늘어난 1만9290명이었고,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7500만원이었다. 하위 10%의 총 수입은 387억9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2009만원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미디어 창작자 규모와 창출 가치가 늘어남으로 전망된다"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귀속 창작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은 6751억원으로 전년보다 34.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